

개정 역사 교육과정서 '5·18' 제외 논란

2022 개정 고교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를 뒤늦게 포함했으나 '5·18 민주화 운동' 표현 빠진 채 유지 교육부 "정부가 내용 누락하도록 한 것 아니다... 정책 연구진이 자율적으로 판단한 결과" 재차 해명

자유민주주의를 뒤늦게 포함했으나 5·18 민주화 운동 표현은 빠진 채 유지한 2022 개정 교육과정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전적으로 연구진(집필진)의 자율성에 의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부 표현을 뺀 결과라고 해명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뒤늦게 다시 넣은 것과 모순되지 않는지는 지적이 나오자 나온 답변이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 제외 논란에 대해 묻는 말에 "정부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누락하도록 한 사항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2021년 연말에 구성된 정책 연구진에 의해서, 그 이전에 큰 방향에서 우리 교육과정 개정의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정책 연구가 이뤄졌다"며 "대개회의 큰 틀론적인 틀이 확정됐고 그에 맞춰 학습 요소

를 전 교과에서 대폭 생략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과정 대개회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지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에서 세세하게 규정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취지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학습 요소라는 대목이 있는데 지난해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에는 학습 요소가 통째로 제외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자유민주주의', '6·25 남침' 표현 제외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예정되지 않았던 브리핑을 열어 해당 표현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최종 확정된 교육과정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는 역사 교육과정을 집필한 정책 연구진도 반대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 선호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넣고 진보 진영에서 강조하는 제주 4·3이나 5·18 민주화 운동은 빠진 채 둔 게 의도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된다. 이런 지적에 오 실장은 "연구진들이

시안을 제출했고 국민참여소통채널(온라인), 공청회, 2차 대국민 소통채널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들어온 의견 전체를 전달 연구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남침 등 표현 삽입은 대개회 기초에 어긋나지 않냐 묻자 오 실장은 "그 부분도 연구진이 판단한 것"이라며 "어느 정도가 들어간 것이 대개회라는 본질, 방향을 해치지 않으며 국민들의 우려나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할 것"이라며 "연구진들이 자율성에 의해 반영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장흥재 책임교육정책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보면 '4·19부터 6·10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학습해야 한다'는, 시지점·끝나는 시점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5·18 누락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 실장은 "모든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필수 용어, 편찬상의

유의사항 등에 이러한 학습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22일 확정해 고시한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한국사2의 '대한민국의 발전' 대목에는 배워야 할 내용인 성취기준에 현행 교육과정에 있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다.

지난 2018년 7월 개정된 현행 고등학교 사회과 한국사 교육과정을 보면 같은 대목의 학습요소로 5·18 민주화 운동 표현이 포함됐다. 소주제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 포함된 학습요소 중 하나다.

이원과 시민사회 반발도 거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광주 5월 단체와 당사자들은 "기록살"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스



군산상의 신년인사회

4일 리츠프라자호텔에서 2023년 군산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김동수 군산상의 회장, 김원준 군산시장, 김경일 군산시의회 의장, 신영대 국회의원, 지역상공인회와 관계기관 사회단체장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병역의무 중요성 일깨우는 기회"

이기식 병무청장, 도내 병역명문가 예우한 김 지사에 감사

전북도가 병역명문가에 김관영 도지사 명의의 감사 서한문을 전달한 일과 관련해 이기식 병무청장이 감사사를 전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기식 병무청장은 "전북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병역명문가에게서 서한문을 통해 존경의 마음을 표해주시는 데 대해 서면으로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며 감사 서한문을 지난해 12월 27일 도에 전달했다.

이 청장은 서한문을 통해 "전북 지역 병역명문가를 위해 지사님께서 보내주시는 감사 서한문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다양한 예우 정책은 신성한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일깨워주는 소중한 기회

가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이 예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 청장의 감사 답신을 받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해 병역명문가 우대시설 확충 등 더 많은 병역명문가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해 모범이 되는 도내 병역명문 234가문에 서한문을 전달했다. /김재훈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서비스... 15일부터 개시

대중교통 이용공제 80% · 월세 공제범위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 난임시술비 공제 30%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이번에는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달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미리야 한다"며 "지난해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서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동의 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생계비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20%도 계속 적용된다. 소비 증가분이란 지난해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한 금액이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는 각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증가분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주거 부담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공제는 기존 20%에서 30%로, 마술사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앞서 한시 시행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올해에도 적용된다.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 중 1000만원 이하금액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주조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됐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됐다.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월 소득분을 지급할 때 지난해 귀속 연금 소득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한다. 지급명세서를 다음달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뉴스

오늘부터 수의사법 시행... 현장 점검 나서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동물병원 관계자 등 만나 협조 당부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4일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5일부터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등을 담은 수의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준비사항을

점검·지도하기 위함이다. 특히, 신 국장은 동물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내용이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동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도 동물소유

자 등에게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대상은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이다. 진료비용 게시방법은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에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주요 진료는 진찰 입원 개·고양이 예방접종, 전혈구 검사, 엑스선 촬영 및 판독료 등이다. /김재훈 기자

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점검 등 단속

설명절 대비 대형마트·전통시장 대상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및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공급 및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주로 찾는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소가 대상이다.

모집	우석대학교 ·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방학특강(1~2월)과정 모집	환영
스피치 · 긴장해소 · 시낭송 · 웃음코칭 · 면접		
<p>현대는 소통의 시대, 능력의 시대, 이미지 시대, 감성의 시대입니다. 정통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원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현대인의 필수로 자리 잡은 본 과정에 주저하지 마세요. 저렴한 등록금으로 평생교육원에서 좋은 인맥으로 즐겁게 학습합니다.</p>		
	<p>▷ 전담교수 주요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및 겸임교수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겸임위원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연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스피치지도사, 시낭송지도사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 노하우" 등 	
<p>* 강사 : 김정리(웃음코칭지도사, 레크지도사, 스피치지도사)의 전문강사</p> <p>◎ 과 목 명 : 스피치기법과 리더쉽(원광대), 웃음코칭(우석대)</p> <p>◎ 모집대상 : 대학생, 일반인 남, 녀 누구나(남,녀,노,소)</p> <p>◎ 모집방법 : 선착순 각 25명 · 매주1회 야간수업</p> <p>◎ 등록방법 : ① 전화접수 ② 방문접수 ③ 팩스접수</p> <p>◎ 상담전화 : 231-6669, 010-7304-5665, (우석:252-9601, 원광:850-5512)</p>		
<p>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익산)</p>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